

2030년부터 여성인구가 더 많아진다

여성가족부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발표

전체인구 5182만명 중 여성 2586만명... 0.1% ↑
성비 2000년 101.4 → 2030년 99.8 → 2060년 97.9

2030년부터는 우리나라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7일 여성가족부가 분석 공개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82만2000명으로, 이 중 여성 인구는 전년보다 0.1% 증가한 258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9.9%를 차지했다. 2021년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 수)는 100.4명으로 2000년과 비교해 1명 감소했다.

여성 인구는 2030년 이후 남성 인구보다 많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성비 추이(명)는 2000년 101.4 → 2010년 100.8 → 2021년 100.4 → 2030년 99.8 → 2060년 97.9이다.

연령대별 인구는 여성과 남성 모두 50대가 16% 이상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 30대 순이다. 성별로 보면 50대까지는 남성 인구가, 60대 이상부터는 여성 인구가 더 많았다. 성비는 20대가 112.9명으로 가장 높으며, 80세 이상은 50.6명으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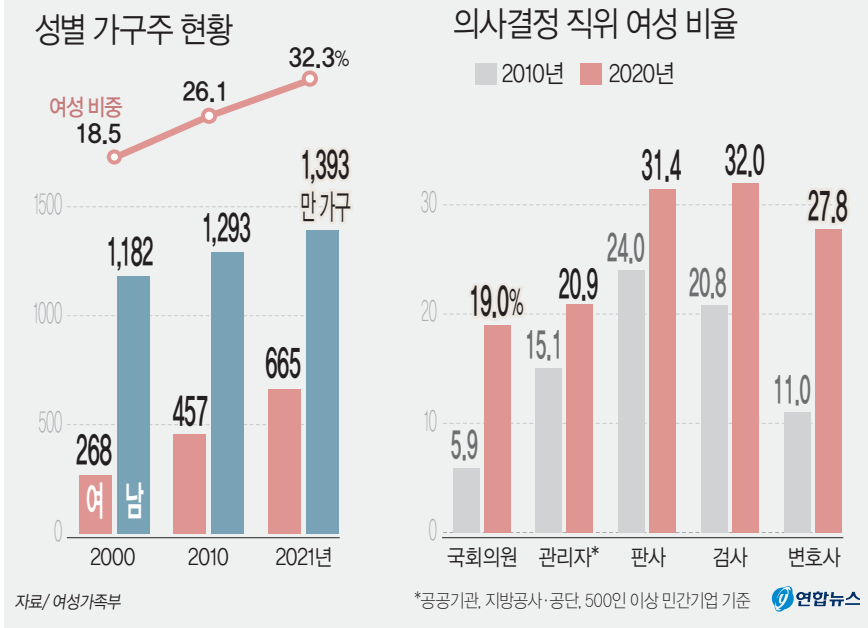
2021년 여성 인구를 2000년과 비

교하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30대까지는 감소했고, 40대 이상부터는 증가했다. 인구구성을 보면, 40세 미만 여성 인구의 경우 2000년 62.9%를 차지하지만 2021년에는 41.3%로 21.6%p 감소했다.

2021년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 수는 664만7000 가구로 전체의 32.3%였다. 여성 가구주 비율은 2000년(18.5%)과 비교해 13.8%p 상승했으며, 2030년 35.4%, 2040년 37.8%로 상승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혼인상태별 여성 가구주 구성비를 살펴보면, 미혼 및 이혼 여성 가구주 구성비는 상승 추세며, 사별의 경우 하락 추세이다. 여성 가구주 중 유배우 구성비는 2000년 16.2%에서 2021년 26.9%로 동기 10.7%p 상승했다.

2020년 일반가구는 2092만7000 가구이며, 그중 1인 가구는 664만3000 가구로 31.7%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15.5 → 2010년 23.9 → 2020년 31.7이다.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주요 내용



2020년 여성 1인 가구는 333만 9000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1인 가구 중 50.3%이다. 2000년 대비 206만 가구, 전년 대비 24만5000 가구 증가했다. 여성 1인 가구는 2000년 127만9000 → 2010년 221만8000 → 2020년 333만9000이다. 여성 1인 가구는 남성 1인 가구보다 많았으나, 성별 격차는 감소해 2020년에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2020년 여성 노인 1인(만 65세 이상) 가구는 전체 노인 1인 가구 중 71.9%였다. 전년의 약 1.1배로 8만 73만1000 가구(157.9%) 증가했다. 여성 노인 1인 가구는 2000년 46만 3000 → 2010년 85만 → 2020년 119만 4000이다. 여성 노인 1인 가구 수는 남성 노인 1인 가구 수보다 많았으나, 2000년 이래 성별 구성비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공공부문 양성평등 문화 진단 올해 지자체 대상 시범 실시

여성가족부가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시범 실시한다.

오는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참여기관을 선정한 후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2020년 연구결과를 토대로 올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진단도구, 추진체계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지원을 넘어, 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올해 6월에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1만7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직문화 진단은 인사제도 운용실적 등 행정통계 자료와 구성원의 설문조사, 심층 면접조사를 거쳐 개선과제를 도출하게 된다.

특히 인사제도 운용현황, 구성원의 성별 직무배치, 성별 일·생활 균형 이용실적,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협력태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현황과 구성원의 인식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심층면접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광역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례회의를 통해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도구 및 추진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광역시청 × 한라일보
치매예방학습지 **뇌똑똑**
200회차 기념 이벤트

(2017. 09. 20. ~ 현재까지)
기간: 2021. 9. 29.(수) - 2021. 10. 1.(금)
대상: 한라일보 구독자 (제주도민에 한함)
당첨: 정답자 중 선착순 100명 (농협상품권 1만원권)
발표: 2021. 10. 4.(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 통보

★ 이벤트 참여방법

1. 한라일보에 게재된 '뇌똑똑 200회차' 문제를 풀다
2. 경품수령을 위해 문제 아래 제시된 <개인정보보관>에 이름, 연락처, 주소를 기재한다.
3. '뇌똑똑' 정답과 <개인정보보관>이 보이도록 휴대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는다. (JPG 등 사진파일을 이용해 문제출이를 했을 경우 문제, 정답, 개인정보보관이 보이게 캡처해주세요)
4. 촬영한 사진을 jeju@nid.or.kr로 문자 전송한다 (문자 전화번호로 인해 이메일 주소로 입력 후 전송하시면 됩니다.)

치매예방 주간학습지 **노똑똑!** <198>

한라일보·제주도 광역치매센터 공동 기획
문제 1. 가로열쇠와 세로열쇠를 이용해 빈 칸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보세요.

①, ①				②	②	경	③	보
③	④		⑤					
						④	⑦	
⑥								
⑤	사	회	적					

- 가로열쇠
1. 4번마다 열리는 국제 운동 경기 대회 'TOKYO 2020 ○○○'
 2. 기상 주의보 중 하나, 하루 최고 기온이 35°C 이상이고, 하루 최고 열지수가 41°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됨
 3. 열은 열로써 다스린다는 뜻으로, 힘에는 힘으로 또는 강한 것에는 강한 것으로 상대함을 이르는 말
 4. 최선책에 다음가는 방책
 5. 전염병의 확산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 "정부, 다음주까지 사회적 ○○○ 효과 없으면 더 강한 방역조치 검토"

- 세로열쇠
1. 개구리의 새끼
 2. 체면을 차릴 줄 모름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3. 보고하는 글이나 문서
 4. 자물쇠를 잠그거나 여는데 사용하는 물건
 5.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
 6. 사는 곳을 다른 데로 옮김
 7. 회전축에 붙은 날개를 전동기로 돌려 바람을 일으키는 장치

문제 2. <보기>를 보고 아래의 빈 칸에 알맞은 답을 적거나 O, X를 선택하세요.



- 1) 이 영상의 길이는 총 11분 30초이다. (○, ×)
- 2) 이 영상의 조회수는 125건이다. (○, ×)
- 3) 이 채널의 구독자는 총 ()명이다.
- 4) 이 영상이 게시된 날은 2021년 ()월 ()일이다.

문제 3. <조건>을 보았을 때 영희의 집은 몇 호인지 찾아보세요.

- 영희는 철수가 집 바로 옆이 아니다.
- 철수는 창문이 없는 집에 산다.
- 영희네 옆집에는 강아지가 산다



학습지 정답은 13면 한라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제주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 최근 기후변화, 개발사업과 유입인구 증가, 물을 많이 이용하는 특용작물이나 시설하우스 전환등으로 지하수 함양면적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지하수 이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과도한 농약과 비료 살포, 가축분뇨 불법배출,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실관리 등 지하수의 수질을 위협하는 잠재 오염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지하수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계속 쓸 수 있는 무한 자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지하수를 평평 쓰고 있습니다.
- 상수도과 농업용수를 대부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에서 지하수는 도민 모두가 소중한 사용하고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할 공공자산입니다.
- 이제부터라도 지하수 오염원은 줄이고 물은 아껴씁시다.

제주지하수 보전·관리 캠페인

이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탄소없는 섬 제주에서 유치하겠습니다.